
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환경정책 동향

2020. 6. 26.

(기간 : 6. 22 ~ 6. 26)

 **KEITI** 한국환경산업기술원
국 가 환 경 정 보 센 터

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	주요 내용
이탈리아 (바티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황, 코로나19가 새로운 환경 의식을 촉구할 것(6.23) ▶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요일(6월 21일) 전 세계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오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함. 2p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가들, 코로나 대유행 기간동안 다회용 용기가 안전하다고 밝혀(6.24) ▶ 1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월요일(6.22)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다회용 용기가 안전하다는 서명된 성명서를 발표함. 2p
브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FCM 허용 목록 시행 연기(6.25) ▶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때문에 FCM 허용목록 준수일이 2021년 6월 3일로 연장됨. 3p
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항하는 그린 빌딩 기술(6.26) ▶ 싱가포르 그린빌딩협의회 회장은 그린 빌딩 기술로 유행병이 더 흔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힘. 3p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스크바이오켄(Eskbiochem)사 손세정제 사용 금지 권고(6.26) ▶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(FDA)은 손 세정제 제품 9개에 유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함. 3p

(이탈리아, 영국, 브라질, 싱가포르, 미국) 코로나 관련 외신

□ (이탈리아)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요일(6월 21일) 전 세계가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오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함(6.23)

○ 성 베드로 광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염병의 대유행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과의 관계를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말함.

- 교황은 “봉쇄는 오염을 감소시켰고, 교통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많은 장소는 아름다움을 다시 드러냄.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 모두는 공동의 집(지구)을 돌보는 책임을 더 져야한다”고 강조함.

☞ <http://www.channelnewsasia.com/news/world/covid-19-pope-francis-spark-new-environmental-awareness-12856438>

□ (영국 등) 18개국 119명의 과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다회용 용기가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힘.(6.24)

○ 성명에 따르면,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최고의 과학과 지침에 기초한 재사용 시스템은 기본 위생법을 채택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함.

-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표면과의 접촉이 아닌 주로 비말 흡입을 통해 확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며, 다회용 용기는 뜨거운 물과 세제 또는 비누로 철저히 씻어야 한다고도 조언함.

○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지만, 포장업체가 이에 반대하여 대유행을 이용해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.

-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한 금지를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10월로 재연기했지만, 여전히 도입하기로 결정함.

☞ <http://chemicalwatch.com/123971/canada-to-resume-publication-of-chemical-assessment-updates>

□ (브라질) 브라질 보건부는 제조업체가 식품접촉물질(FCM, Food Contact Material)로 사용할 수 있는 첨가제 허용 목록 시행을 연기함(6.25)

- 남미공동시장 기술 규정(Mercosur Technical Regulation)에 맞춰 조정된 이 목록은 2019년 12월 3일 채택돼 올해 6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었으나 2020년 5월 26일 결의안에서 **준수일이 2021년 6월 3일로 연장됨.**
- 결의안에 따르면, 이번 사항은 브라질 보건부와 위생감시국(Anvisa)의 이사회가 결정한 것으로, **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때문이라고 밝힘.**

☞ <http://www.chemicalwatch.com/127787/brazil-delays-implementation-of-positive-list-for-fcm-additives>

□ (싱가포르) 싱가포르 그린빌딩협의회(SGBC, Singapore Green Building Council) 회장은 건물에 기반을 둔 예방 및 통제 조치는 **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에**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함(6.26)

- 경제 재개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**쇼핑센터, 사무실, 공장 및 기타 공유 공간에 그린빌딩 기술을 적용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고, 향후 질병 발생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.**

☞ <https://www.bbc.com/news/science-environment-52968716>

□ (미국)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(FDA)은 손 세정제 제품 9개에 유독성 물질인 **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함(6.26)**

- 9개 제품 모두 **멕시코의 에스쿠바이오켄(Eskbiochem SA)사에서 제조됨.** FDA는 Lavar Gel과 CleanCare No Germ 등 2개 제품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**부피당 각각 81%, 28%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고 밝힘.**
- FDA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적절한 유해 폐기물 용기에 담아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함. 또한 배수구나 변기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함.

☞ <http://www.fda.gov/drugs/drug-safety-and-availability/fda-advises-consumers-not-use-hand-sanitizer-products-manufactured-eskbiochem>